



여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적자율성 -C지역 여대생과 여고생을 중심으로

권윤정¹, 곽상화², 김영주², 윤민영², 윤지은², 이한나², 임보희², 최슬기²
1)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학생

연구의 필요성

- 청소년**
 - 성지식은 30.9/10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황인영, 2009, 김미숙, 2002)
 - 성 개방 형태는 다소 부정적이며 폐쇄적이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는 개방적이다. (안은주, 2003)(이민경, 2003)
 - 성관계의 이유에 관해 '분위기에 휩쓸려' 48.3%, '상대방이 원해서가' 31.3%로 성적 자율성이 낮다. (강영삼, 1997)
 - 대학생**
 - 성지식은 31.3/10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황인영, 2009)
 - 혼전 성관계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 (Sohn과Chun, 2005)
 - 성적 자율성 점수는 51.3/65점으로 평균보다 높다. (황인영, 2009)
- 성지식은 부족하지만 성에 대한 태도는 개방적이다. 성적자율성이 낮게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의 연구는 있으나, 두 집단을 비교하여 연구한 자료는 미비하여 성교육이 가장 필요한 집단에서 연령에 따른 변화를 추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의 개요

연구 목적

-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성교육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들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적자율성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및 성적자율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여고생과 여대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적자율성의 차이를 비교한다.

본 연구는 여고생과 여대생을 중심으로 여학생들의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적 자율성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과 성인 초기에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재정립하기 위한 현실적인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설계 : 서술적 상관관계연구

설문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변수들간의 관계를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대상자

-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C대학과 D고교에서 편의표집한 여대생 120명과 여고생의 120명으로 합계 240명 을 대상으로, 총 회수율 약 87%로 누락 26부를 제외한 209부를 이용했다.

자료수집 및 절차

- 2014년6월1일~2014년6월30일
- 직접 학교 방문하여 연구목적 을 설명하고 연구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 를 배부한 후 수거했다.

측정도구

- 성지식: 성기관의 구조와 기능, 임신, 피임, 인공유산, 성병, 성생리, 자위행위 등 7개 영역 측정, Cronbach's $\alpha=0.84$
- 성태도: 성 허용성, 피임의식, 교감, 매개로 구성된 총 23문항, Likert식 5점 척도. 신뢰도: Cronbach's $\alpha=58-.83$
- 성적 자율성: 총 13개 문항, Likert식 5점 척도, 점수의 범위는 최저 13점에서 최고65점, 신뢰도: Cronbach's $\alpha=.86$

연구 결과

Table 1.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율성

성지식	고등학생	대학생	t	p	
					성기관(9문항)
임신(6문항)	3.43 ± 1.160	3.38 ± 1.290			
피임(5문항)	3.33 ± 1.172	3.29 ± 1.193			
인공유산(5문항)	2.08 ± 1.506	2.39 ± 1.416			
성병(5문항)	2.04 ± 1.391	2.61 ± 1.386	-2.937	.004 *	
성 생리(5문항)	2.40 ± 1.400	2.51 ± 1.211			
자위행위(5문항)	2.39 ± 1.436	2.43 ± 1.326			
총합(40문항)	20.51 ± 6.687	21.92 ± 6.167			
성태도	허용성	20.07 ± 5.41	19.34 ± 6.110		
	피임의식	13.06 ± 1.96	13.12 ± 1.956		
	성교감	13.70 ± 3.08	14.94 ± 3.104	-2.835	.005 *
	성매개	12.91 ± 3.37	13.44 ± 3.448		
	총합	59.81 ± 10.415	60.83 ± 10.168		
성적자율성	50.19 ± 5.616	52.29 ± 6.760	-2.455	.015 **	

• 성지식과 성태도, 성적자율성 모두에서 여대생이 여고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 $p<.01$, * $p<.05$)
 • 성지식 하위 항목 중 성병 점수는 여대생이 여고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성태도 여대생이 여고생보다 개방적이며, 특히 성교감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성적자율성은 여대생이 여고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의 차이 T / F (P)

일반적 특성	이성친구	부성태도	지식출처	주성태도	주성지식	첫성교육시기
성적 자율성	0.834 (.707)	0.844 (.717)	0.889 (.630)	0.855 (0.678)	1.299 (.157)	4.355 (.035)*

• 성적자율성은 첫 성교육 시기가 빠른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 결과 5-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 성지식은 성태도($r=.000, p<.01$) 및 성적자율성($r=.008,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 성태도와 성적자율성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 나이는 성태도중 성교감 항목에서 ($r=.000, p<.01$)와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성지식과 성적자율성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성관련 특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 T/F (P)

	성지식							총합
	성기관	임신	피임	인공유산	성병	성생리	자위행위	
이성친구	.909 (.364)	2.103 (.037)*	1.827 (.069)	.109 (.913)	.679 (.498)	.309 (.758)	2.086 (.069)	1.827 (.069)
부모 성태도	1.161 (.315)	1.241 (.291)	2.417 (.092)	3.723 (.026)*	1.310 (.272)	1.966 (.143)	2.417 (.092)	3.490 (.032)*
주관적 성태도	6.628 (.002)**	1.164 (.314)	8.123 (.000)**	1.970 (.142)	.430 (.651)	2.539 (.081)	8.123 (.000)**	5.859 (.003)**
주관적 성지식	4.532 (.004)**	1.957 (.122)	4.824 (.003)**	1.918 (.128)	.890 (.447)	1.961 (.121)	4.824 (.003)**	5.400 (.001)**
첫성교육 시기	.330 (.720)	.942 (.392)	1.113 (.330)	4.696 (.014)*	3.419 (.010)*	.905 (.416)	.379 (.685)	.759 (.459)

** $p<.01$, * $p<.05$
 • 성지식 항목 중 성기관의 구조와 기능, 피임에 대한 지식 점수는 주관적인 성태도, 주관적인 성지식이 좋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성지식 중 인공유산에 대한 지식은 부모의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첫성교육 시기가 빠른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성지식 중 임신과 자위행위에 대한 지식은 이성친구가 있는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성병에 대한 지식은 성교육 시기가 빠른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Table 3. 성관련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 T / F (P)

	성지식				총합
	허용성	피임의식	성교감	성매개	
이성친구	1.050 (.024)*	.568 (.573)	1.649 (.103)	1.427(.157)	1.672 (.065)
부모 성태도	.823 (.441)	5.583 (.004)**	1.756 (.176)	3.351(.037)*	3.164 (.043)*
지식출처	1.640 (.139)	.539 (.778)	2.614 (.019)*	2.163 (.049)*	2.603 (.019)*
주관적 성태도	6.684 (.002)**	3.245 (.041)*	1.477 (.231)	4.646 (.011)*	8.018 (.000)**
주관적 성지식	4.176 (.007)**	3.166 (.025)*	.945 (.420)	1.563 (.202)	3.606 (.014)*
첫성교육 시기	.482 (.618)	1.784 (.170)	.470 (.626)	.543 (.582)	.002(.996)

** $p<.01$, * $p<.05$
 • 성에 대한 허용성은 스스로가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성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군과 이성친구가 있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 피임을 해야 한다는 의식은 부모의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스스로가 성지식이 많고 개방적이라고 생각하는 군에서 높은 양상으로 보였다.
 • 성 지식출처가 학교에서의 교육과 주위친구나 선배로 응답한 군에서 성태도 중 성매개와 성교감에서 개방적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 성지식은 성 태도와 성적자율성과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성태도와 성적자율성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사이에서도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 간의 인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성교육 중재연구가 필요하다.
- 연령이 높은 군에서 이성친구가 있는 비율이 더 많고, 이성친구가 있는 군이 임신, 자위행위와 관련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건강에 있어서 의미가 큰 성병이나 피임 지식은 유의하게 상승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성병예방과 피임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실천적인 성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성적자율성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성 지식은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고 성교육시기가 빠른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첫 성교육시기가 빠를수록 성적자율성이 높고, 성지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지만 성태도와 성적자율성은 연령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자율성은 지식의 양보다는 성교육을 접하는 시기의 문제로 여겨진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부터 자연스럽게 성지식에 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 외의 결과에서 주된 성 지식출처는 학교에서의 교육과 주위친구나 선배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성태도는 성지식의 출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태도는 학교를 중심으로 또래집단에 의해 공유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성태도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단계별 체계적인 성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